

믿음의 시야 확보

■ 본문

왕상 10:1-7

■ 시작 찬송가

31, 91, 287장
(통 46, 91, 205장)

■ 헌금 찬송가

383, 524, 545장
(통 433, 313, 344장)

▶ 보다

1. 주께서 보시는 것

1)사람의 중심

(마 22:16, 막 12:14)

2)사람들의 통곡

(막 5:38)

3)제자들의 곤경

(막 6:48)

4)믿음

(마 9:2, 막 2:5, 눅 18:8)

시야

‘시야’의 사전적 의미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 ‘사물에 대한 식견’, ‘사려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의 멀고, 넓음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좀 더 위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을 확보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번제를 통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상 3:12-13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음 처음으로 솔로몬이 해결한 것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재판하여 아이를 친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 했을 때에도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잘 풀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근신안적으로 천 여 명의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들과 함께 온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모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죽여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왕상 11:6-8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물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11: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중요한 시야, ‘두 가지’

지혜로운 솔로몬은 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풀어주고, 정작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시야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좁아진 시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야가 넓습니다. 또한,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야가 좁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야’입니다. 이것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히 12:1-2상 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셨습니까?

히 12:2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하면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더 멀리 바라보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야 확보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을 확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걸음 뒤로 가실 줄 알았고, 더 멀리 보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 백성들은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며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요 6: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우리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원래 멀리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천번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봐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자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멀리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기 몸만 바라보고 궁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이 쌓인 것을 기뻐하고 여인들이 쌓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왕상 9:28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왕상 11: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필립 안시(Philip Yancey)는 「기도」라는 그의 책을 통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막 14: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절망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야’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넓은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시 123:1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의 한마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2. 성도가 보아야 할 것들

1)하나님의 영광

(출 16:7, 행 7:55)

2)하나님의 인도

(출 19:4)

3)구원

(출 14:13, 대하 20:17)

4)여호와의 선하심

(시 27:13)

5)주의 법

(시 119:18)